

# 정유업계, '보릿고개' 끝 보인다 SAF·액침냉각 등 신사업 속도

(지속가능항공유)

지난해 4분기 정제마진 반등  
유가 안정세... 실적개선 기대  
"글로벌 경기 회복세 관전"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스오일·HD현대오일뱅크)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제품 수요 감소 영향으로 지난 3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정유 4사의 지난 3분기 합산 영업 손실은 약 1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4분기 들어 정제마진 반등에 성공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 싱가포르 정제마진은 평균 배럴 당 4.1달러를 기록하며 수익분기점에 진입했다. 이에 최악의 구간은 지나갔다는 평가가 따른다. 지난 3분기 정제마진은 배럴 당 평균 3.5달러로 손익분기점 수준인 4~5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나 이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정유설비 가동률 조정으로 정제마진 회복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업계에서 새해 정제설

비 수준 물량이 지난해 대비 줄고 폐쇄 물량은 늘어나며 수급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가 또한 4분기에 변동 폭이 적게 형성돼 안정세를 보였다. 서부텍사스유(WTI)는 지난 9월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나 지난 10월 기준 76.57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가는 지난 9월 대비 12월에 소폭 하락했으나 해당 기간에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긍정적 재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고평가손익의 회복과 함께 등·경유 마진 회복으로 스팟 정제마진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정유 4사의 수익성 회복에 긍정적인 진단을 내놓고 있다. 에스오일의 4분기 영업이익은 약 1789억원으로, 직전 분기 영업적자 4149억원에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4841억원 적자에서 291억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단기적으로 긍정적 재고에 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정유업계에 통상 환율 상승은 악재이나, 기존

에 사들인 원유 재고 평가에는 긍정적이었던 설명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환율 급등은 업계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금 결제를 달러로 하는 특성상 환율이 오를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 수요 감소의 근본적 원인인 글로벌 경기 불황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수익성 회복에 관건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분기 실적 개선 요인은 단기적이라 올해 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유업계는 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장기적인 과제로 신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속가능항공유(SAF), 바이오선박유, 액침냉각 사업 등 비정유 사업 포트폴리오를 늘리며 활로를 모색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4분기에는 직전분기보다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변수로 작용할 요인이 많다"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동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일본 시즈오카에 위치한 후지 스피드웨이 서킷에서 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이 주행하는 모습.

## 현대차, '아이오닉5N DK에디션' 공개

일본 레이스 초치야 케이치 협업

현대자동차가 일본 유명 레이스와 함께 개발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N'의 한정판을 최초로 선보였다.

현대차는 10일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일본 최대 자동차 튜닝 박람회 '2025 도쿄 오토살롱'에서 '아이오닉5N DK에디션'을 공개했다.

아이오닉5N DK 에디션은 현대차의 고성능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N을 일본 레이스 초치야 케이치와 협업해 만든 모델이다. DK는 초치야 케이치의 별명 '드리프트킹'에서 따왔다.

아이오닉5N DK 에디션에는 ▲두랄

루민을 정밀 가공해 제작한 6P 모노블록 브레이크 캘리퍼 ▲기존 대비 면적을 54% 넓히고 마찰계수를 강화한 전용 브레이크 패드 ▲휠과 타이어 안착면에 특수한 톱니 가공 구조를 적용한 21인치 경량 단조 휠 ▲차량 무게 중심을 낮추는 로워링 스프링 등 전용 부품이 장착됐다.

또 탄소섬유 소재 프론트 스플리터, 사이드 스커트, 리어 윙 스포일러를 적용해 차체를 노면으로 누르는 힘인 다운포스를 증가시키고 접지력을 향상해 고속 주행 안정성도 강화했다.

현대차는 이번에 공개한 아이오닉5N DK 에디션을 올해 상반기 국내와 일본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 HD현대중, 페루 함정 건조... 중남미 진출 박차

시마조선소 함정 프로젝트 착공식  
내년 인도... "양국 방산협력 기여"

'K-방산'이 새해 시작과 함께 중남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페루 국영 시마(SIMA) 조선소에서 함정 프로젝트 착공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페루에 함정 3종(호위함, 원해경비함, 상륙함), 총 4척을 수출한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월 페루 정부와 6406억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건조된 함정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돼 페루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구스타보 아드리안센 올라야 총리, 알테르 아스푸디요 국방부장관



지난 10일(현지시간) HD현대중공업과 페루 시마조선소가 함정 3종, 4척에 대한 공동착공식을 진행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사진 왼쪽 세번째부터) 특수선사업대표, 구스타보 아드리안센 올라야 페루 총리,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알테르 아스푸디요 페루 국방부 장관. /HD현대중공업

을 비롯해 루이스 호세 플라르 피카리 해군참모총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페루 조선업 역사에서 이번 착공식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HD현대중공업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페루 해군 현대화를 촉진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는 착공식에서 "이번 착공식은 K-함정 중남미 진출의 서막을 여는 것"이라며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한화오션, 해상풍력 하부 부유체 모델 개발

'윈드하이브 15-H3' DNV 개념 승인

한화오션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핵심 기체재인 하부 부유체의 자체 모델 개발에 성공했다.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업계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15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까지 수용함으로써 풍력발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게 됐다.

한화오션은 노르웨이 선급 DNV로부터 해상풍력발전기 하부 부유체의 개념설계(Pre-FEED)에 대한 개념 승인(AIP)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념 승인은 기술의 안정성과 국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하는 인증 절차다.

이번에 개념 승인을 획득한 하부 부유체 모델은 한화오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윈드하이브 15-H3'이다. 2023년 한화오션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브랜드를 '윈드하이브'로 명명



대형 해상풍력발전기를 탑재한 '윈드하이브(WindHive) 15-H3'(노란색 구조물)의 조감도.

하고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 숫자 '15'는 15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H3'는 3개의 육각기둥으로 구성돼 있다는 의미다. 기둥 모양을 육각형으로 채택한 것은 기둥 간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한화오션은 이번 승인 획득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상풍력발전기설치선(WTIV) 건조 능력에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까지 확보해 해상풍력 솔루션의 폭을 넓혔다. /양성운 기자

## LG엔솔, 앰테라모터스에 배터리 공급

(美 태양광 전기차 스타트업)

7년간 원통형 배터리 4.4GWh 공급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태양광 전기차 스타트업 앰테라모터스에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 공급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 앰테라모터스, 국내 배

터리 팩 제조사 시티엔에스(CTNS) 등과 3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31년까지 7년간 앰테라 모터스에 원통형 배터리(2170) 4.4GWh(기가와트시)를 공급한다.

앰테라모터스가 개발한 태양광 전기

차 'Aptera(앰테라)'는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팩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주행거리를 극대화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다. 지난해 시험 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5만여 대의 선주문을 받아 올해부터 미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앰테라 모터스와의 공급 계약을 통해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더욱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됐다. /차현정 기자

## 에코프로, 전문가 제도 도입... 1호 명인 선발

전문지식 갖춘 핵심 인재 육성

에코프로가 전문지식을 갖춘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독보적인 직무 능력을 갖춘 임직원을 '명인'으로 선발해 임기 3년의 준임원 대우를 한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 설비기술 팀 배문순 직장을 제1호 '명인'으로 선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코프로 명인은 경력 10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전문성 및 사내 혁신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발됐다.

배문순 명인은 설비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 동료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오류를 잡아 나가면서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현정 기자